



<예술인과 재난을 대하는 **가지가지** 온택트수다>

결과보고서

수다명	풍당풍당 - 모하구지내?		
키워드	일상	신청자	김한은
프로젝트 결과	<p>풍당풍당 참여자 5인(이하 HE,YM,Z,H,S)이 화상회의 플랫폼인 zoom을 통해 1시간 40분간 대화를 나눴다.</p> <p>1. 우리들의 SNS 활용기 !</p> <p>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인스타그램’에 대한 피로도에 관한 대화가 주를 이뤘다. 대다수 사람이 사용하고,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는 SNS기 때문에 시각 작업을 전달하기에 충분히 효과적인 플랫폼이었지만, 그만큼 활용해야 한다는 강박과 피로가 높았다. 일상과 작업이 혼재된 타임라인 안에서, 인맥을 쌓거나 이미지를 계속해서 업로드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늘어나는 광고와 정보량에 대한 피로함에 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우리의 대화가 dm으로 시작되었던 것처럼 네트워킹에 도움을 주고 이미 필수적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여,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것에 모두 동의했다.</p> <p>2. 작업은 좀 어때 - 작업공간, 피드백</p> <p>다섯 명의 참여자 모두 작업을 지속하고 있지만, 동시에 회의감과 막연함을 느끼고 있었다. 경제적인 생활과 작업을 지속해야 하는 현실적인 부담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작업을 공유할 사람이 줄어드는 것에 따른 공허함, 전문성을 위해 갖춰야 하는 장비와 부담하게 되는 비용에서 어려움, 앞으로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막연함, 지원금에 의존하게 되는 현실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는 대화가 줄을 이었다.</p> <p>3. 내가 이걸 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 (돈 벌려고 이러고 있을 줄 몰랐어)</p> <p>이전엔 생각지 못했던 분야에서 일하고,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거나 회사의 취업을 준비하는 등, 예상하지 못했던 각자의 의외성은 주로 경제적인 이유였다. 조형예술을 전공하고 졸업한 친구들은 현재, 가구 디자인, 컴퓨터 그래픽, 문신, 영화, 음악 등 다양한 갈래로 나아가고 있다.</p> <p>아래는 참여자 5인의 후기이다.</p>		

HE의 후기

애초에 서로의 근황을 묻고자 했던 취지에 맞춰 근황에 대한 소소한 잡담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안부를 묻자마자, 2년이라는 만남의 공백기가 무색하게 다들 편하게 근황을 알려주었다. 학창 시절부터 달랐던 성향처럼, 학교 밖에서는 더욱더 다르게 살 줄 알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놀랍도록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코로나로 바깥 생활이 축소되자 반대로 늘어나게 된 SNS 활동과 작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 그리고 예상 밖의 행보.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끼리 즐거운 수다가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모두 안고 있던 무거운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YM의 후기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했지만, 비슷한 대화가 반복되었다.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과 학교 밖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새로웠다. 2년의 공백만큼 생활과 일상의 변화가 있었지만, 공유하고 있는 고민과 생각이 비슷하다는 것이 놀라웠다. 아직은 확신이 없고, 여전히 막막하고 조금은 두려운 생활을 친구들은 어떻게 유지하고 지속해갈지 궁금하다. 지금으로부터 또 2년 뒤에 같은 대화를 나누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
★

Z의 후기

SNS를 통해 전시한다는 너희들의 소식을 들었다. 코로나의 여파로 전시, 공연, 행사 등등 많이 축소되고 취소되는데 다들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다. 미대 졸업 후 2년 정도가 지났는데, 아마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았다. 작업을 지속하는 일, 돈을 버는 일, 혹은 일상을 유지하는 취미나 새로운 배움 같은 것들. 이 사이에서 얼마나 갈팡질팡하는지, 혹시 나만 불안한 건 아닌지.

다들 외로울 때 집에서 스토리 한 장 올리고, 오랜만에 맛집에 가면 음식 사진 올리는 건 비슷하구나. 그리고 역시 전시, 공연 홍보는 SNS가 최고다. SNS가 포트폴리오가 되는 시대. 사업을 준비하려는 사람, 취직하려는 사람, 일단은 알바와 작업을 병행하려는 사람, 취직해도 퇴근 후에 작업하려는 사람.

당장 6개월 뒤에 우리는 뭘 하고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에게 '일상'이란 뭘까? '일상적'인 것은 뭘까?

H의 후기

오랜만에 친구들과 대화를 나눴다. 코로나로 인해 화상채팅을 통해 만났다. 이 언택트 수다의 물꼬를 어떻게 틀 것인지로 시작했다. 형식적인 말 몇 마디가 끝나자 서로의 근황에 관해 자연스럽게 넘어갔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최근에 면접을 보고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작업과

생계를 어떻게 조율하며 살아가는지, 어떤 우울과 막막함을 가졌는지 얘기하다 보니 우린 학교 다닐 때와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적어도 우리의 관계는 2년의 공백에도 끊어질 듯 하다가도 이어져 왔고 우리의 대화 내용도 그랬다. 말 없는 침묵도 다음을 말하기 위한 준비였고 우리의 공백도 그러할 거란 생각이 들었다.

S의 후기

2년이 지난 지금, 각자는 비슷하면서 또 다르게 살아가고 있었다. 각자가 하는 일은 차이가 난다면 난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생각들이 공통된 부분이 많은 것 같아 웬지 모르게 위안이 되었다. 미래에 대해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답답함이나 불안 같은 것들이 주로 겹쳐있었는데, 각자가 나름의 방법대로 타협하거나 받아들이는 방법을 들으니 조금은 객관적인 시선이 생긴 것도 같다. 작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공간- 공간을 위한 지원자금- 자금을 위한 작업이 굴레처럼 돌아가는 현상이 우리 다섯 명에게 작업과 일상에 있어 꽤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